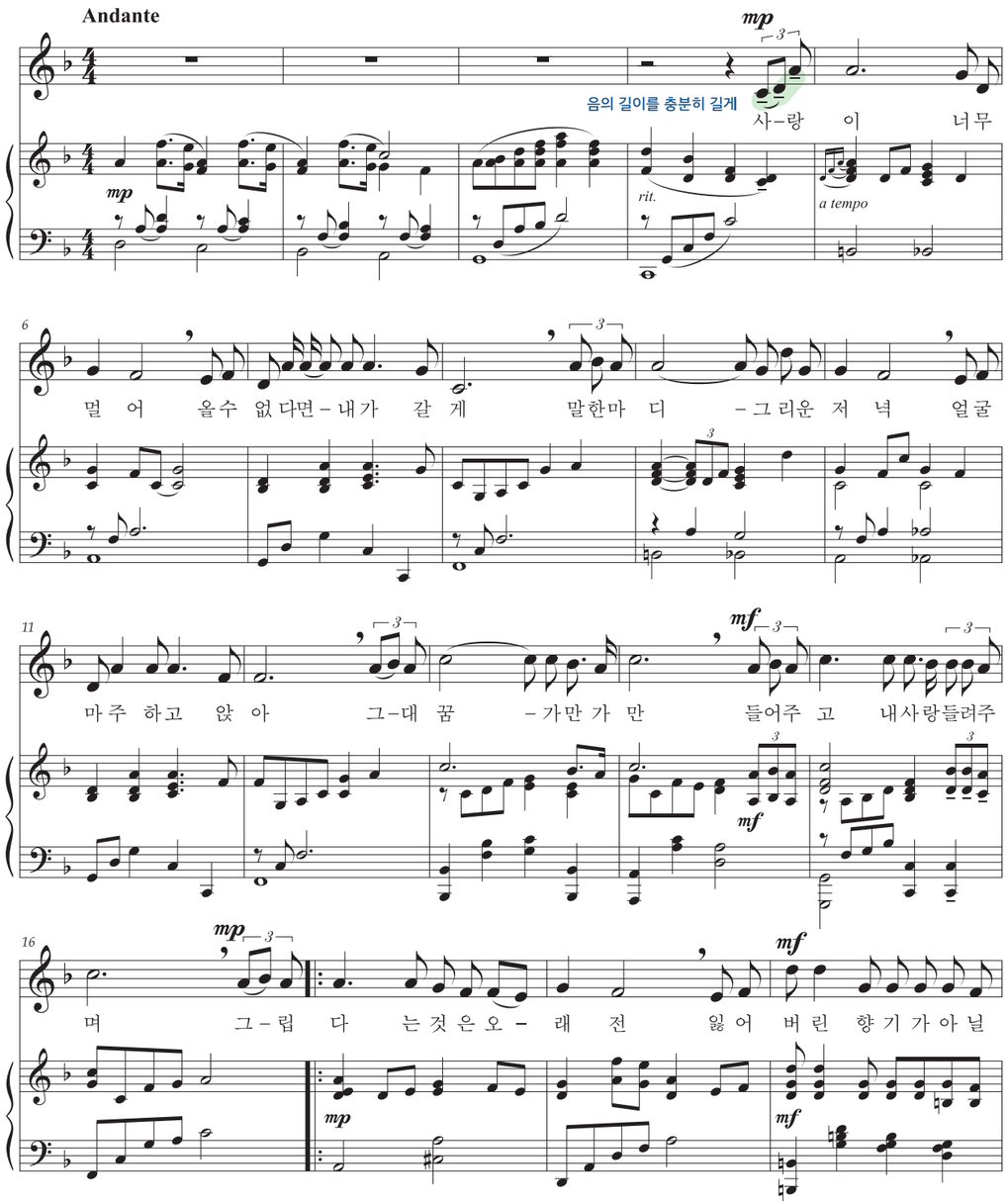
마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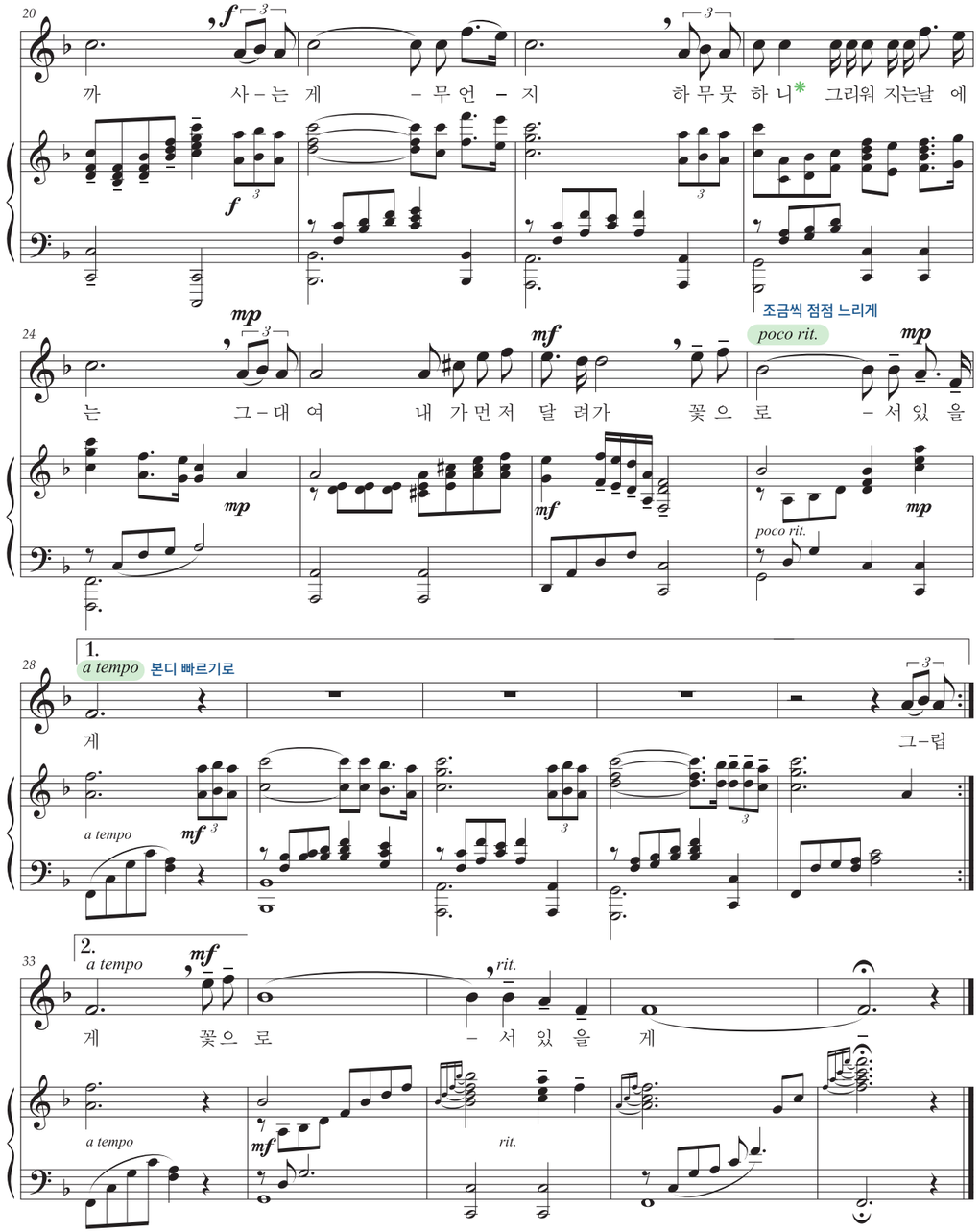
시와 가락의 어울림을 느끼며 노래 부를 수 있다.

001

허림 시 | 윤학준 작곡



이 노래는 2014년 화천비목콩쿠르 창작 가곡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곡으로,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.



* 하무뭇하니 | 옛 생각에 마음이 충만해져 흐뭇하거나 흡족함

1 여러 성악가가 부른 '마중'을 감상하고, 시와 가락의 어울림을 느끼며 노래 불러 보자.